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 공공개발로 '가닥'

해수부 용역...여수광양항만공사 주도 주철현 의원 "경제적 타당성도 확인"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



해양수산부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용역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공공 개발하는 안이 우선순위에 꼽혔다. 사진은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여수시 제공>

수 년째 사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여수박람회장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 갑)에 따르면 최근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투자 및 개발 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여수박람회장의 민간개발계획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공공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보고회는 지난 1년간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여수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에 대한 용역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용역팀은 박람회장 활용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인수해 공공 개발하는 방안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민간 개발에서 공공 개발로 변경하고, 박람회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가 승계해 박람회장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후활용사업 주체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수익사업 투자계획을 조정하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인수해 운영하면 2050년까지 66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금액 대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인 '수익성 지수(PI)'도 0.93~0.98로 예상돼 수익성 확보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수는 투자한 금액 1원당 회수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PI가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개발 주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되면 항만공사는 2025년까지 정부에 선투자금 3658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개발하려면 여

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은 4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중심의 공공개발은 해수부와 전남도, 여주시, 시민사회 등 여수지역 모두가 바라는 일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확인됐다"며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은 친환경적 개발, 지역민 참여 보장, 공공성 등 3대 원칙이 관철되는 공공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2013년부터 사후활용을 위

해 민간 매각이 추진됐으나 평가 결과 사업 내용이 박람회 성격과 맞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2017년에는 복합상업시설 구역에 4개 업체가 투자 의사를 밝혀 제안서를 받았으나 역시, 부적격 판단이 나왔다.

박람회장 운영을 위해 매년 100억원이 필요하지만, 자체 수입은 80억원에 불과해 사후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만권 상생 발전 한목소리 여수·순천·광양시-국회의원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 3개 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회가 지난 30일 여수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허석 순천시장, 김경호 광양부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김희재·소병철·서동용 국회의원이 참석해 광양만권 상생 발전에 한 목소리를 냈다.

회의에서 3개 시는 광역관광 활성화와 여수공항 활성화 지원 공동 대응,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 확대 등 17건의 협력사업의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신규 공동사업으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센터 건립과 전남 동부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공동협력 등 2건을 의결했다.

지역 현안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동권 유치,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유치, 광양항-울촌산단 간 연결도로 개설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3개 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사도~남도 인도교 설치,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센터 조성, 광양항 울촌산단 연결도로 등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감사원,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부적정'

삼산·망복지구... 시에 주의 요구

순천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순천시가 2016년 삼산지구와 망복지구 공원에서 추진한 민간공원 조

성 특례사업이 부적정했다며 순천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에 공원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는 비공원 시설을 만들게 돼 있다.

비공원시설에는 택지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순

천시는 2016년 11월 택지개발사업을 제안한 컨소시엄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순천시는 또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시설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도 않은데다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

기 바란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순천시 망복지구 주민 등 300여명은 순천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사업대상자를 부당

상임위 통과 순천도시계획조례안 9개월째 '낮잠'

시의회, 본회의 상정 안해...아파트 층수제한 없애는 대신 용적률 제한

순천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9개월째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시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해 7월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 창출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 및 개선 ▲용도지역 지구내 건축물 허용 용도 정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반영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개선안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 창출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신축시 최고 18층으로 제한된 층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했다.

순천시는 난개발 등 이유를 들어 최고 층수 높이

를 18층으로 묶었으나, 최근 지역에 아파트 신축 분량이 늘면서 획일화된 층수로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남에서는 목포·여수·광양·나주시 등이 250% 용적률을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이미 삭제했다. 이들 지자체는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을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이 조례안은 같은 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지만 본회의 안건 상정이 지연돼 의원들간 갈

등 소지도 있다. 이처럼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의원들이 층수 제한 폐지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 등의 여론을 의식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시의회 의원들 간에도 시간을 두고 조례안을 검토하자는 일부의 의견이 있지만, 이미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통과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층수 제한이 없더라도 용적률에 맞추기 때문에 무작정 높이 짓지는 못해 경관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순천행·의정모니터단에는 "난개발을 통한 생태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교생 야간자율학습 귀가 지원 곡성미래교육재단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은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귀가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심야에 놓여준버스의 막차가 끊겨 하교가 불편한 학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매일 지역 내 고등학생 27명이 이용한다.

곡성미래교육재단은 최근 곡성고, 옥과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야간자율학습 귀가차량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유호순 미래교육재단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다양한 여건 탓에 학습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사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 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후손의 일대기!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 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의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예제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에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기를 맞아 펴낸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년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x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